

종교문화유적지 탐방: 김제군 기독교선교지

1. 탐방목적

- 기독교 신앙에 확고한 믿음과 순교자의 신앙심 계승, 주안의 교제 및 친목도모
-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와 신앙생활의 성숙 결심

2.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12:30 ~ 18:30

3. 주관, 대상

- 전남대 기독교수회, 종교문화연구소
- 전남대학교 기독교수, 종교문화연구소 관계자 및 관심자

4. 탐방장소

전북 김제 일원

- 김제 금산교회(기억자교회)
- 수류성당(호남 유명 3대 성당중 하나)
- 조정래 아리랑문학마을
-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 김제평야, 김제지평선

5. 진행일정

- 이동경로: 전남대 →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 조정래 아리랑문학마을 → 금산교회(기억자교회)
→ 수류성당 → 전남대

# 12: 30 ~ 13: 43	이동 전남대 ~ 김제 벽골제	73km
# 13: 43 ~ 14: 43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관람	
# 14: 43~ 14: 50	벽골제 ~ 아리랑문학마을	4km
# 14: 50~ 15: 50	아리랑문학마을 관람	
# 15: 50~ 16: 20	김제 금산교회(기억자교회)	4km
# 16: 20~ 17: 00	수류성당	4km
# 17: 00~ 18: 22	수류성당 ~ 전남대	83km

6. 행정사항

- 케주얼한 복장(모자)
- 회비: 1인당 20,000 원, 안전운행 및 규정속도 준수
- 이동: 대형버스(30인승) 또는 승용차

[탐방자료]

징기밍기. 대한민국 땅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만큼 너른 평야에, 동진강 만경강의 힘찬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는 풍요의 땅 김제만경을 부르는 동네 토박이들의 친근한 호칭이다.

특히 만경 일대는 먹을거리 걱정 없는 기름진 논밭에다, 온갖 해산물들을 언제라도 건져낼 수 있는 황해바다까지 거느리고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죽는 사람 하나 없다는 명성으로 이웃 동네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행복한 고장이었다.

금산교회(기역자교회)

- 주소: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07
- 홈페이지 :

대한제국기에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Tate, L.B.)가 건립한 기역자형 한식목구조 건물로 예배 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서로 보지 못하도록 교회 건물을 기역자로 건축하여 기역자교회로 부른다. 1905년에 5칸으로 건립되었고, 이후 1908년에 지금의 자리에 옮겨 건축되었다.

머슴 출신인 이자익 목사와 지주 출신 장로 조덕삼 장로의 일화는 유명하다. 공동의회에서 장로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후보로서 지주인 이자익 집사와 그의 머슴 마부가 후보로서 당연히 이자익 집사가 당연히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선출된다. 심지어 이자익은 조덕삼의 12살 연하였다. 이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는데 이후 이자익 장로의 신학교 학업을 돕고 목사 안수를 받자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머슴 마부 출신 담임목사를 충성되어 헌신하며 섬긴 일화는 유명하다.



[금산교회(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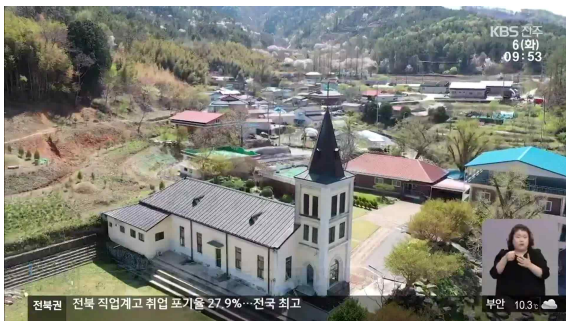
수류성당

- 주소: 전북 김제군 금산면 화율리
- 홈페이지 ; <http://www.>

1890년대 호남에 3개의 성당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이다. 되재본당(완주 화산), 나바위본당(익산 군 망정면), 수류본당이 바로 그 곳이다. 수류성당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권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류본당은 1889년 장약슬[J. Vermorel] 신부가 당시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설립하였던 배재본당이 그 모태로서, 배재에 공소가 설립된 것은 1882년 가을 류달영[A. Liouville] 신부에 의해서였다. 그 후 장약슬 신부가 고산 배재[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일명 수티[秀峙]]에 거주하면서 1888년 가을부터 1889년 1월까지 전라도 남쪽 지방의 공소 판공을 치렀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본당 신자 50여 명이 사망하였고 성당마저 화재로 소실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류본당 관할 지역은 1951년부터 제13대 주임 김반석 신부가 부임해 오는 1960년 3월까지 김제본당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역 신자들은 1959년 성당·사제관·수녀원을 건립하는 등 본당 승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1961년 4월 25일 교구의 지시에 따라 김반석 신부는 성당을 교통이 편리한 원평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1966년 4



월
다시
류로
원되
다.



8 일
수
환
었

[수류성당]

조정래 아리랑문학마을

- 주소: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 홈페이지 ; <http://www.>



일제 강점기를 다루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곳이다. 소설의 배경으로 수탈당한 땅과 뿌리 뽑힌 민초들이 민족의 수난을 재현하였다. 당시 소설에 등장한 내촌·외리 마을의 주요가옥과 민초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던 주재소, 면사무소 등 근대기관이 있다.
이민자 가옥인 너와집, 갈대집과 하얼빈 역사도 있다.

벽골제

- 주소: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 홈페이지
- 개요:

벽골제는 대한민국 저수지의 효시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330년에 축조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한반도의 인공 저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한국 최고(最古)의 저수지 독으로, 백제 비류왕 27년(330)에 독의 길이 1800보 규모로 처음 축조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원문 삼국사기에는 백제본기가 아니라 신라본기 흘해 이사금 21년 조에 기록되어 있으나, 학계에서는 벽골제가 있는 전북 김제 지역이 당시에 신라 땅일 수가 없으므로, 백제의 기록이 신라본기에 오기되었다고 보고 비류왕 27년으로 적는다.

이후 통일신라 원성왕 6년(790) 증축. 이후 11세기 초 고려 현종, 12세기 초 인종, 15세기 초 조선 태종 재위기 등 4차례에 걸쳐 개축하였는데, 세종 2년(1420)에 홍수로 무너졌다. 일제강점기 1925년에 동진수리조합이 농지관개용 간선수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되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1975년에 복원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골제]

